

지역경제 버팀목 향토기업 방문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 휴비스 찾아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향토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6일 전주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휴비스(대표이사 김석현)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장이 직접 지역 산업의 근간인 향토기업의 경영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날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주)테크카본(공동대표 신현규·김광수)을 방문했다.

지난날 23일에는 전주지역 대표 중소기업인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하는 등 강한 경

제 구현을 위한 기업과의 소통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휴비스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하기 위한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는 기업 경영진과 △공공부문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병간소재 활용 공공정책 추진 등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날 생산 현장에서 따 흘러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 50여 명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기업이 제시한 제안이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전주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휴비스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역 일자

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현재 58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주시, 9-13일 신청 접수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시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용자 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시는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상반기에 우선 배정해 명절 전후 기업들의 운전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5000만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으로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시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용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전자우편(stglassk1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공시설 수목까지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정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전주시가 가로수와 녹지, 산림, 공원 수목은 물론 공공시설 수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목 관리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 전반의 수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 수목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가로수·녹지·산림·공원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된 반면, 공공시설 수목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로수·녹지·산림·공원 이외의 공공시설 수목 정비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날 중 녹지부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공시설 수목에 대한 확실한 정비 기준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와 잘못된 이식으로 수목 생육에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예방해 수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수 관련 협의·승인 시에도 관련 기준·매뉴얼을 협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명확하고 세밀함을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가로수부터 공공시설 수목에 이르기까지 수목 정비시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의 생육·미관 및 차량의 통행, 시설물·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부득이 강정정이 필요한 경우 수목의 생육·미관을 최우선으로 강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필요한 이슈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전 사업별 시민참여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나가기로 했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도시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수목을 통해 시민들이 생애 감수성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녹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내 휴게음식점 오늘부터 정상 운영

전주동물원 내 휴게음식점이 9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운영이 중단돼 공실 상태에 놓여 있던 전주동물원 내 휴게음식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물원 방문객에게 휴식 및 식을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허가 대상 시설은 전주동물원 내부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다.

휴게음식점의 면적은 356㎡이며, 사용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 2년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공개 입찰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후 시는 지난달 최종 사용 허가와 함께 사용료를 부과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휴게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숨은세월 발굴조사단' 본격 활동

탈북·은닉 세월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설 전주 숨은세월 발굴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공정한 과세 기반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구성된 2026년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이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사단은 올해 첫 일정으로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차량·사업장 등 세원 유형별로 구분해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찬에서 조사단원들은 분야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찬을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조사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북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 분석 방법과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키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분야별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조사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세원 발굴을 위한 협업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전주시 2026년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이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시는 이번 직무연찬을 시작으로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탈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역할·기능 체험' 청소년의회 운영

전주시의회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은 물론 체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 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9월부터 3월 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설 명절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NAVER | 장수물 MALL